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 상해행정학원(SAI) 2024년도 한중세미나(상반기) 결과보고

I. 출장개요

- 목 적 : 2001년부터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 연구를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한국과 중국의 공통 현안에 대한 학술행사 등을 통한 상호 경험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공유하고자 함
- 기 간 : 2024. 04. 17.(수) ~ 04. 19.(금)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 중국 상해 일원 / 2박 3일
- 참가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원장	원장권한대행	주재복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이제연
자치분권제도실	선임연구위원	최인수
자치분권제도실	부연구위원	이서희
기획조정실	다급전문원	탁영지
경영지원실	3급 사무원	권경철
(외부)	중국어 동시통역사	최윤정

II. 출장내용

○ 프로그램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4.17 (수)	~09:20	○ 인천 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	T2/ C 카운터	
	11:10~12:25 (着:상해 현지시간)	135'	○ 인천공항 → 상해 푸둥공항(대한항공)	비행편 KE0897
	12:30~15:00	150'	○ 입국수속 ○ 상해 푸둥공항 → 상해행정학원(SAI)	SAI 공항영접 및 숙소 체크인
	15:00~17:00	120'	[현장시찰 I] ○ 구베이 시민센터 방문	
	17:00~18:30	90'	[만찬회] ○ 환영 만찬회 (부원장 주재)	하이싱빌딩
4.18 (목)	08:00~09:00	60'	○ 조식	하이싱빌딩
	09:00~10:30	90'	[현장시찰 II] ○ '일류 비즈니스 환경 만들기' -난징시루(南京西路) 거리를 사례로 ※위젠닝(于健宁) 교수 동행 설명	서난징로 거리
	10:30~11:30	60'	○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방문	대한민국임시 정부 청사
	12:00~13:00	60'	○ 중식	하이싱빌딩
	14:00~14:30	30'	[개 회] ○ 양 측 참석자 소개 ○ 개회사 (뤄핑 상해행정학원 부원장) ○ 인사말씀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대행)	진행: SAI
	14:30~14:55	25'	[발 제 I] ○ KRILA측 발표 ■ 발표: 이서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 ■ 제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성과	
	14:55~15:20	25'	[발 제 II] ○ KRILA측 발표 ■ 발표: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 제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혁신 체계화 방안	제1세션
	15:20~15:30	10'	[토 론] ○ 발표내용 논평	

	15:30~15:50	20'	[질의응답]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5:50~16:00	10'	○ Coffee Break	
	16:00~16:25	25'	[발제 I] ○ SAI측 발표 ■ 발표: ZHOU Jing (周静) (상해행정학원 부연구원) ■ 제목: 산업 업그레이드로 촉진되는 상하이의 질적 성장	제2세션
	16:25~16:50	25'	[발제 II] ○ SAI측 발표 ■ 발표: LI Xiaojing (李晓静) (상해행정학원 조연구원) ■ 제목: 상하이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의 모색과 이행	
	16:50~17:00	10'	[토론] ○ 발표내용 논평	
	17:00~17:20	20'	[질의응답]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7:20~17:30	10'	[폐회] ○ 마무리 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	
	18:00~		○ 석식 및 예원 탐방	하이싱빌딩/ 예원
4.19 (금)	07:30~08:30		○ 조식	하이싱빌딩
	08:30~10:00	90'	[현장시찰 III] ○ 상해행정학원 캠퍼스 투어	SAI빌딩
	10:00~10:10	10'	○ 체크아웃	하이싱빌딩
	10:10~10:50		○ 상해행정학원 → 푸둥공항(동방항공)	
	11:00~13:00		○ 출국수속 및 증식	공항내
	13:40~16:45 (着:서울 현지시간)	125'	○ 상해 푸둥공항 → 인천공항(동방항공)	항공편 KE0898

○ 주요참석자 명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수행업무)	성명	직급 또는 직위 (수행업무)
주재복	원장권한대행 (기관장)	탁영지	대외협력팀장 (국제협력 담당)
이제연	기획조정실장 (토론)	권경철	행정예산과장 (사진촬영 등 실무지원)
최인수	자치분권제도실장 (발표·토론)	최윤정	동시통역
이서희	지역경제분석센터장 (발표·토론)		

〔상해행정학원〕

성명	사진	학력/직위	주요경력	역할
정준 曾峻 (Zeng Jun)	 1968년생	- 법학 박사/ 교수	-현) 상해행정학원 상무 부원장 -현) 상해시당교 부총장, -현) 교무위원회 부주임, -전) 상해행정학원 교육부장 -전) 상해시당교 학장	환영 만찬회
뤄펑 罗峰 (Luo Feng)		- 법학 박사/ 교수	-현) 상해행정학원 부원장 -현) 상해시당교 부총장, -현) 교무위원회 위원	개회사
판 웬수안 (PAN Wenxuan)	 1982년생	- 경제학 박사/ 교수	-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 수석부원장 - 상해행정학원 학술위원회 위원	좌장

<p>장평 (ZHANG Feng)</p>	 1979년생	<p>- 법학 박사/ 교수</p>	<p>-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 연구원</p>	<p>토론 (논평)</p>
<p>자오웬핀 (ZHAO Wenpin)</p>	 1981년생	<p>- 법학 박사/ 교수</p>	<p>- 난카이대학 졸업 -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 연구원</p>	<p>토론</p>
<p>저우징 (ZHOU Jing)</p>	 1986년생	<p>- 경제학 박사/ 교수</p>	<p>-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 부연구원</p>	<p>발표</p>
<p>유지안닝 (YU Jianning)</p>	 1986년생	<p>- 사회학 박사</p>	<p>-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 조연구원</p>	<p>현장시찰 동행</p>
<p>리샤오징 (LI Xiaojing)</p>	 1991년생	<p>- 경제학 박사</p>	<p>- 상해행정학원 상해발전연구원 조연구원</p>	<p>발표</p>

○ 주요 활동 내용

[4. 17.(수) : 세미나 개최 및 발표·토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 상해행정학원 [SAI] 공동세미나 개최 및 세션 I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 상해행정학원 [SAI] 공동세미나 세션Ⅱ 및 폐회



Ⅲ. 세미나 발제 내용

[발제 1]

○ 이사회 지역경제분석센터장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성과

- 지역경제는 공간적 제약을 받은 경제 또는 경제의 공간적 구조를 의미함. 지역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공간적 단위로서, 외부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독립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구조를 갖춘 공간에 해당함.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국가경제 내부의 지역적 구성부분을 가리키는 바, 각 지역 단위별로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실효적인 자원의 활동, 생산 및 교환, 소비 등과 같은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함.

즉, 경제활동은 공간적 제약과 환경조건의 차이에 따라 지역적 분업과 어느 정도의 지역적 순환을 낳게 되고, 이를 통해 일정한 특색을 지닌 지역경제가 형성됨. 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경제는 개별 지역의 특색 및 자원 등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성장을 모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함.

- 지역경제는 크게 개방성, 지역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주요 특성을 나타냄. 개방성은 인구와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경제의 개방성은 이주 제한이나 관세 및 통관절차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다소 축소되는 반면, 지역경제는 인구 유출입과 상품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지님.

지역성은 지역별로 보유한 고유의 역사, 문화, 전통산업 등이 미치는 영향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지역의 특색에 따라 개별 지역경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됨. 지역 경제의 다양성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인 바,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지역성은 곧 다양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임.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의 지역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경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지역경제는 최근 벌어진 코로나 19 사태 및 경기침체 지방세수 부족 등과 같은 일련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국내 지역경제에 대한 동향파악과 이를 통한 관련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함.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별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는 달랐고 이에 대한 대응도 국가(중앙)보다는 지역(지방)이 주가 되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존재함.

결국, 개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취지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지닌 고유 특성과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당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립 또는 의사결정 역량이 중요함.

- 중앙과 지방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유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제도는 “경제특구” 운영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현행 각종 특구 등의 세제지원은 특구 내 입주 기업이 입주 또는 창업 후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현행 각종 특구 등의 지방세 지원은 특구 내 입주 기업이 입주 또는 창업 후 발생시킨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구성. 현행 기업의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대한 감면은 총 5개 사항으로 세액 감면과 양도차익 과세 특례로 구성. 지방세는 지방이전 인센티브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운영.

- 현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및 지방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대표적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투자금액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금 존재. 복귀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종도 각 지역마다 차등 존재.
- 분야에 따라 지역경제분석 기본모형을 다양하게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충청남도과 같이 지역에 맞는 지역경제분석 모형을 구축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함
- 충청남도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사실 이를 기본적 구조로 설정하여 지역경제분석 모형을 구축해도 됨. 그러나 제조업, 가구조비, 상권 유통 등 환경조사가 전국적 단위에서 조사될 수 있는가의 정성적 분석의 영역은 구축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음
- 얼마만큼의 노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는 정책입안자의 몫이며, 이를 명확하게 해야 기본모형을 구축할 수 있음. 현재 있는 영역 내에서는 영역별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임

[발제 II]

○ 최인수 자치분권제도실장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혁신 체계화 방안

- 국정과제 16(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목표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함
국정과제 11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는 지방정부의 인적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규제혁신 강화를 추진함
- 2023년 4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이후 동년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출범함,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시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실행하는 반면, 지방정부에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중 규제영향분석이 언급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4곳임. 지방정부는 연간 4500여건의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3000여건)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과 지방규제 전문기관(분석, 연구 등)의 필요성 및 각급 전문기관 간 협업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추진방안 모색 필요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에서는 지방규제를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로 정의함
지방규제는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의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2019~2021년 사이 가장 많이 건의한 광역시도는 경기도로 총 3,091건(총 등록 지방규제 40,182건)중 450(경기도 총 6,066건)으로 전체 중 14.6%를 차지하고있으며, 특히 2021년의 경우 경기도가 22.7%를 차지하고 있음. 2019~2022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 2019~2022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을 위해 발굴한 규제개선 건수는 총 9,144건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추진 실적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굴된 규제개선 건수(9,144건) 중 규제개선 협의한 관제 건수는 총 4,445건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건의 과제는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어(2022년 제외)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 정부 규제혁신 추진 체계

과거 여러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및 다부처가 연관된 복합규제의 개선에는 미온적인 상황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체감도는 낮은 상황임

- 현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기존의 신설 및 강화 규제심사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 규제혁신전략회의 : 규제혁신 최고 의사결정기구
- 규제혁신추진단 :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신설됨
- 규제심판제도 :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에서 중립적 및 균형적 시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임
- 중앙행정기관 : 민간인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

- 현 정부 규제개혁(혁신) 추진시스템 원칙 : 덩어리 규제 집중 개선, 기존 규제 혁신제도 지속 운영+필요한 범위내 제도 최소 보완 → 1년 후 성과 재검토 및 제도 개편 각 부처 책임하에 자율적인 규제혁신 중점 추진+성과창출 위한 행정문화 조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 발굴·정비,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규제혁신과를 두었고,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 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안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통과 (23년 2월)
공동위원장(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민간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지방규제 개선 프로세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회의 안건 검토

- 중앙규제 : 중점과제 안건 집중 논의(1~2건) 및 후속조치 경과보고
- 지방규제 : 제도지원 및 확산성과 보고 위주로 진행

-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근거 → 전문성 확보

설치 배경 : 지방정부 기존 규제개선을 위한 지방규제혁신체계 지원기관 필요성 증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₁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구축 필요

-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목적
 -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에 기반한 전문기관 설치
 - 지방규제영향분석의 전문성 확보와 유지
 -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성, 객관성 및 투명성의 확보
 - 중장기적인 지방규제개혁 시스템의 발전 및 제도 개선
-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정부 규제 혁신 전문기관 필요성
 - 지역기업 투자지원 킬러규제개선
 -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괄 감축
 - 지자체별 공유재산·민가위탁 관리조례 일괄 검토 및 최소수준 규제로 일원화
- 지방규제 개선건의 내실화가 중요 → 개선건의 분석서 매뉴얼 필요

[발제 Ⅲ]

○ 저우징 SAI 부연구원 - 산업 업그레이드로 촉진되는 상하이의 질적 성장

- 839개의 규제형 금융기관, 13개의 국가금융 요소 시장 및 기능적 금융 인프라, 6,000여 개의 중국 및 해외 금융기관, 30여 만 명 이상의 금융 종사자 상하이에 결집.
또한 투자주이 금융무역구는 푸둥 전체 상품판매의 1/2, FDI 도착자금의 1/3, 소비재 총 소매 판매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 상하이시 금융산업 부가가치 중 50%를 기여하고 있음.
- 340여 개의 세계 500대 기업의 지점과 138개의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가 밀집되어 있음.
상하이에 본사를 둔 3/4의 기업이 전 세계시장에 진출해 성장하고 있으며 경영, 무역, R&D, 투자, 결산 등 80여 개의 다기능 복합 본부가 상하이에 소재하여 중국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함
- 높이 632m의 상하이 타워는 중국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로 건설 면적이 약 58만㎡에 달해 와이탄 1열 전체 건축 면적과 맞먹는 규모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고위 지도자, 글로벌 경제계 리더, 세계적 최고 전문가 및 학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투자주이포럼”은 현저한 '부의효과'를 창출함
- 상하이의 산업 개발에 견인한 것은 경공업 위주의 산업에서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임. 서비스업은 11년 간 50~60%가 늘어남.
3대 선도산업, 6대 중점산업, 4개 신규 산업 및 6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뛰어난 글로벌 도시임.
- 상하이의 명확하고 정확한 도시 포지셔닝 설정은 질적 성장의 전제조건임.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질적 성장의 원동력.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질적 성장을 보장함.

[발제 IV]

○ 리샤오징 SAI 보조연구원 - 상하이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구축의 모색과 이행

- 상하이과학기술혁신센터의 목표과제
 -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육성, 글로벌 영향력 제고→보다 많은 ‘아킬레스건’ 기술 극복, 중국 및 세계 최초 제품 수출
 - 중심도시 장점 최대한 활용,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 선도 - 장강 삼각주 일체화, 산학연융합, 혁신 컨소시엄, 서비스형 정부

-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의 주요정책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적 체계 강화 : 혁신의 주체를 위해 ‘규제완화, 규제해제’, 과학 인재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지원 체계 모색, 연구관리 최적화, 인재 평가 시스템 개선
 - 보다 체계적인 인재 유치 및 육성 정책 시행 : 젊은 과학 기술 인재 육성 강화, 세계 최고의 우수 인재 유치 가속화, 글로벌 인재 유치·집결 방안 개선
 - 중대한 매개체와 중요 분야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하드웨어 제공 : 상하이 소재 국가실험실이 주도하고 국가 중점실험실이 지원하는 실험실 시스템 구축, 응집효과 발휘를 위한 하이레벨 혁신 플랫폼 운영
 -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혁신 창업 환경 조성 : 과학기술 기업이 ‘인큐베이팅 - 육성 성장’에 이르는 전과정 지원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 창업 펀드’ 자금지원 역할 최대한 발휘, 기술요소시장 발전화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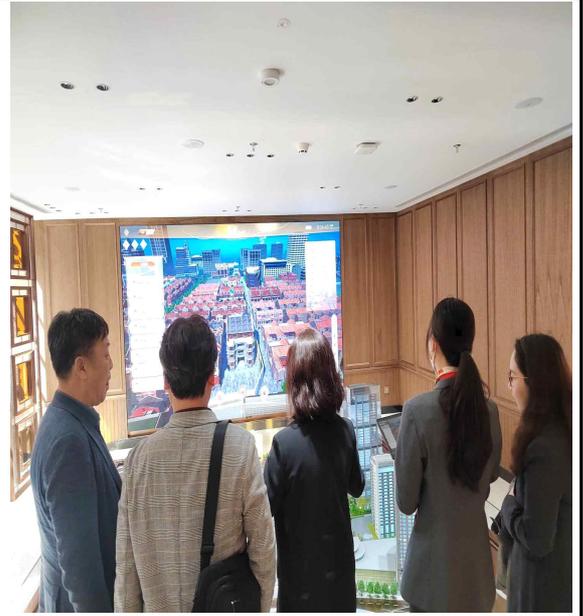
- 상하이 과학기술혁신센터의 주요성과
 - 혁신투자 : 상하이시 전체 R&D 예산 1000억 위안 돌파, R&D 투자 집중도 4.4%
 - 혁신자원 : 14개의 주요 과학 시설 완공 또는 건설 중, 64개 대학, 173개 과학 연구 기관
 - 혁신성과 : 상하이시 전체 특허 등록 건수 163,400건, 인구 1만명당 발명 특허 건수 80.2건, PCT 특허출원 접수 건수 5591건
 - 혁신수준 : 2023년 1~11월 첨단산업 생산액 7,124억 위안, 2023년 1~11월 전략적 신홍산업 제조업 부분의 총 생산액 15,651억 위안, 첨단기술제품 수출품목에서 33% 차지

IV. 현장시찰

장소명	사 진
<p>상해 구베이 시민센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베이시민센터는 2019년 11월 2일, 시진핑이 방문하여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이라며 주창한 장소로 유명함 - 그 후 이를 법으로 명기 - 홍교 해외 인재 컬렉션,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스테이션을 보유, 노인급식소, 무지개다리 자원봉사센터, 현역당원 등록처, 시민회관, 무용연습실 등 편의 시설을 갖춰 중국 정부가 매우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남경서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경서로는 상하이의 랜드마크이자 심장이라고 표현되는 곳 - 현존하는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의 매장이 있어 쇼핑하기에 매우 편리한 곳 - 외지인들은 남경동로 그리고 신천지를 선호하지만, 상해인들은 남경서로를 시내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경서로는 상해의 최신 트렌드와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기에 적합한 장소임

장소명	사 진
-----	-----

남경서로
기업경제발전
서비스센터



- 남경서로 기업경제발전서비스센터는 남경서로에 자리잡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과 중국 정부의 남경서로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계획을 파악할 수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터



-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는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했던 곳으로 항일 운동의 대표기구 역할을 한 임시정부 청사임.
- 내부 사진촬영이 불가능함
-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에는 임시정부청사의 설립 배경과 당시 모습을 재현한 사무실, 물품, 주요 인사들의 사진과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음을 확인

장소명

사 진

상해
행정학원
캠퍼스

